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단색화 개최



좌로부터 작가 하종현, 이우환, 박서보, 초빙큐레이터 이용우
사진 Keith Park

국제갤러리는 금년 5 월을 맞아 글로벌한 미술축제의 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대 미술행사인 제 56 회 베니스 비엔날레 주최 공식 병렬전시로서 <단색화> 전을 개최합니다.

제목: 단색화 (Dansaekhwa)

기간: 2015 년 5 월 8 일 - 2015 년 8 월 15 일

프리뷰: 2015 년 5 월 6 일, 7 일 오전 10 시 - 오후 6 시

간담회: 2015 년 5 월 7 일 오전 11 시 - 오후 2 시

장소: 팔라쵸 콘타리니-폴리냐, 베니스

기획: 이용우 (초빙 큐레이터, 현 세계비엔날레협회장)

내용: 한국 단색화 운동의 대표적 작가 주요 작품 70 여 점

참여작가: 김환기, 권영우,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

협력: 벨기에 보고시안 재단 (Boghossian Foundation)

주최: 국제갤러리

제 56 회 베니스비엔날레의 병렬전시로 기획되는 <단색화>전은 벨기에의 보고시안재단이 주최하고 국제갤러리가 후원하는 한국현대미술 특별전이다. 베니스비엔날레재단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이번 특별전(collateral event)은 1970 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되는 단색화의 주체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본격 국제무대에 선보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단색화> 전은 최근 3 년간 국제 미술계에서 동시대적인 관점을 통해 다각적으로 재조명 되고 있는 단색화에 대한 전시를 비롯, 연구, 출판, 세미나, 퍼포먼스 등을 총괄하는 입체적인 토론의 장이자 그 동력을 촉진하는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참여작가로는 한국 단색화 운동의 대표 작가인 박서보, 정상화, 하종현, 이우환 생존작가와 작고작가인 김환기, 정창섭, 권영우가 있으며, 그들의 작품세계에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궤적을 남긴 단색화 태동기와 중기, 그리고 현재를 아우르는 주요작품 70 여 점이 소개된다.

<단색화> 전을 선보이는 베니스의 유서 깊은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팔라쵸 콘타리니-폴리냐는 15 세기 초 르네상스의 양식을 따른 역사적인 성 내부의 전 층들을 포함, 옥외공간 전면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단색화의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전문적인 아카이브를 통해 지금까지 연구된 단색화 관련 서적, 도록, 포스터 및 관련 시청각 자료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생존 참여작가들의 토론이 담긴 영상물을 통해 작가가 밝히는 당대의 사회적 역사의 궤적이 개인의 작품철학을 고찰하게 된 실제적인 사유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단색화에 대한 해외 미술전문가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해외의 저명한 미술전문가, 비평가 및 큐레이터 그룹을 통해 한국의 단색화와 작가들을 연구한 새로운 차원의 관점을 담은 서적을 출판한다. 이 책은 게티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뉴욕 모마 등과 협업해온 첼시의 저명한 예술서적전문 출판사 그린펠 프레스(The Grenfell Press)에서 발행되며 뉴욕의 DAP 를 통해 전세계 주요 미술기관 및 학술 처에 배포예정이다. 이는 기존 전시 도록의 역할을 넘어 새롭게 조망되는 단색화에 대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관심들을 총망라하는 내용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주요 필자들로는 전시 초빙 큐레이터인 이용우를 포함하여 구겐하임 미술관 큐레이터 알렉산드라 먼로, 워싱턴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 허시혼 현대미술관의 멜리사 추 관장, 미시건 주립대 미술사학과 교수 조앤 기, M+ 홍콩 문화박물관 정도련 학예실장, 전 테이트 미술관 컬렉션 디렉터 제레미 르위슨, 홍콩 공립 미술 학교 학장 루이스 빅스 등이 참여 예정이며 각 필자들 및 참여 작가들이 매치된 작가총론이 출간예정이다.

이번 베니스비엔날레의 <단색화>전은 세계적인 미술 행사이자 축제인 제 56 회 베니스비엔날레와 더불어 단색화가 한국의 미학적 자주성이나 한국미술의 대표성을 촉발하는 그 명칭에서부터 전개과정에 대한 배경, 미학적 견지, 역사적 맥락에 따른 작가론, 근래의 글로벌미술계의 주목적인 현상, 나아가 시장의 영향력에 이르는 폭넓고 다채로운 시각을 조망함으로써 향후 단색화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궤적을 지속적으로 국제미술계에 소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전시의 기획을 맡은 이용우박사는 고려대 교수와 현대미술학회 회장, 2004 년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을 맡은 바 있으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전시를 주최하는 보고시안 문화재단은 1992 년 로버트 보고시안과 그의 두 아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한 비영리문화 재단이다. 2006 년 브뤼셀의 유적 빌라 영뵘(Villa Empain) 공간을 대대적으로 재편하여 동서양 문화의 예술 사회적 교류의 창구로서 가능하도록 발족되었다. 2010 년부터는 재단 내 공간 및 시청각 자료를 대중들에게 개방하여 전시와, 학회, 국제회의 등에 지원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이 재단은 전시와 사회, 교육, 환경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전시장소인 베니스 도시 남측에 자리한 팔라쵸 콘타리니-폴리냐(Palazzo Contarini-Polignac)은 15 세기 르네상스 양식을 지닌 베니스의 역사적인 건축물이다. 이탈리아의 건축가 지오반니 부오라(Giovanni Buora)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스카나 고전주의 형식을 따라 대리석으로 건축된 전면의 파사드가 특징이다. 20 세기 초 유럽 아방가르드 뮤지컬의 주요 인물인 폴리냐 공주의 개인 살롱이었으며 당대의 주요한 예술가인 스트라빈스키 및 에델 스미스가 영감을 받으며, 교류했던 주요한 장소로 유서를 갖고 있다.

김환기 (1913-1974)



17-IV-71 #201

1971

면에 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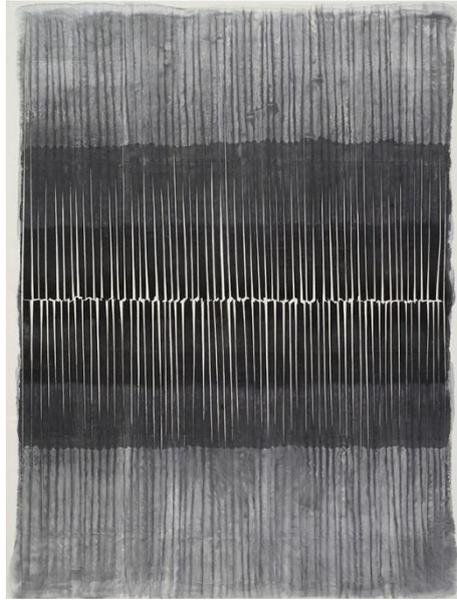
254 x 202 cm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까 시리즈)

환기 재단•환기 미술관 소장

김환기는 한국 추상미술의 제1세대로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보기 드문 세련된 조형언어로 한국적 서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예술 세계를 정립했고, 한국을 비롯 당시 70년대 파리와 뉴욕에 그 이름을 널리 알린바 있다. 그는 1930년대 후반부터 가장 전위적인 미술활동의 하나였던 추상미술을 시도, 당대 한국의 모더니즘을 리드하였으며, 현대적이고 절제된 조형언어를 바탕으로 이룩한 그의 작품세계는 50년대에 이르러 산, 강, 달 등 자연을 주 소재로 더욱 심화되었으며, 밀도 있고 풍요로운 표현으로 한국의 문화와 고유의 정서를 미학적으로 조형화 했다. 그의 작품궤적은 56년부터 59년까지 약 3년 간의 파리시대와 브라질 상파울로 비엔날레 참가 및 명예수상을 한 63년부터 작고한 74년에 이르는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특히 그는 뉴욕시대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는데, 파리시대와 서울시대를 포함한 50년대까지 자유로운 추상적 모티브 및 조형적인 요소가 부각되는 이미지들이 다루어졌고, 60년대 후반 뉴욕시대에는 점, 선, 면 등 단순하고 순수한 최소한의 조형 요소를 차용, 반복적인 행위와 기법, 곧 물질과 색면에 집중한 한 보다 내면적이고 회화적 언어로 발전되었다.

권영우 (1926-2013)



무제

1984

한지에 과슈, 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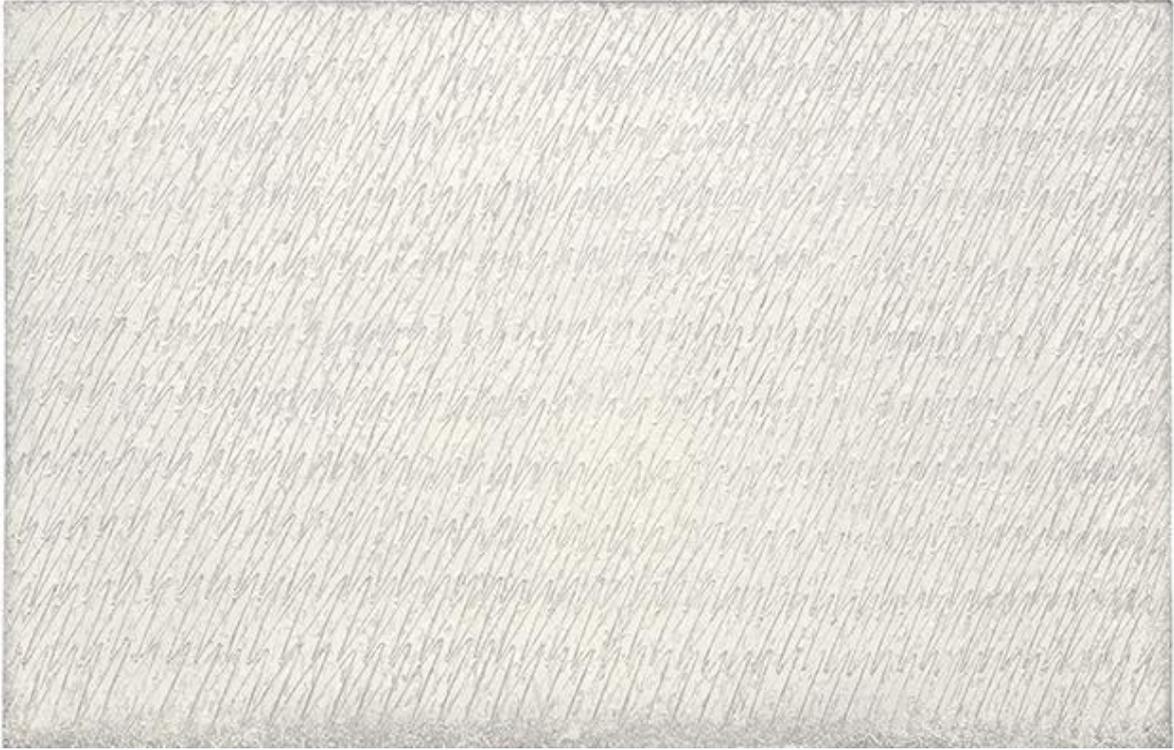
224 x 170 cm

사진: 김상태

권영우는 1926년 함경남도 이원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1기 출신으로 동양화를 전공하였고, 1957년에는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부임, 후학 양성 후, 1978년 작품에 전념하기 위해 프랑스로 이주, 그만의 기법인 종이를 물질적으로 다룬 회화연작으로 국제 화단에서 주목을 받은바 있다. 1989년 귀국 후 지속적으로 종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회화언어를 추구했다. 작품 초기에는 동양화의 기본 재료인 수묵과 종이를 기반으로 했으나 1962년 전후 필묵을 버리고 종이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순수 추상에 전념했다. 그는 그리는 행위를 배제한 종이를 오리고, 찢고, 붙이고, 떼고, 손가락 혹은 손톱으로 밀어내는 등 평면에서 입체로, 통일에서 파괴로 변화를 시도하며 전통적 재료의 한계를 확장하는 추상형식미를 극대화했다. 뿐만 아니라 채색의 경우 찢겨진 부분으로 물감이 들어가는 우연적 현상을 통해 화선지의 물성을 드러냈으며, 화선지와 먹을 통해 담백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기법을 추구한 한국화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56~1977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출품, 1965년 제 8회 도쿄비엔날레, 197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1976년 파리 자크마술 화랑 개인전, 1988년 88 서울올림픽기념 세계현대미술제, 1990년 호암미술관 초대전 등 다수가 있으며 1958년 <바닷가의 환상>과 1959년 <섬으로 가는 길>로 문화교육부장관상을 두 차례 수상, 1998년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 2001년에 은관 문화훈장을 수여 받았다. 주요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런던대영박물관 등 유수의 기관 및 미술관 등이 있으며 작가는 2013년 11월 14일 작고하였다.

박서보 (1931-)



묘법(描法)No. 89-79-82-83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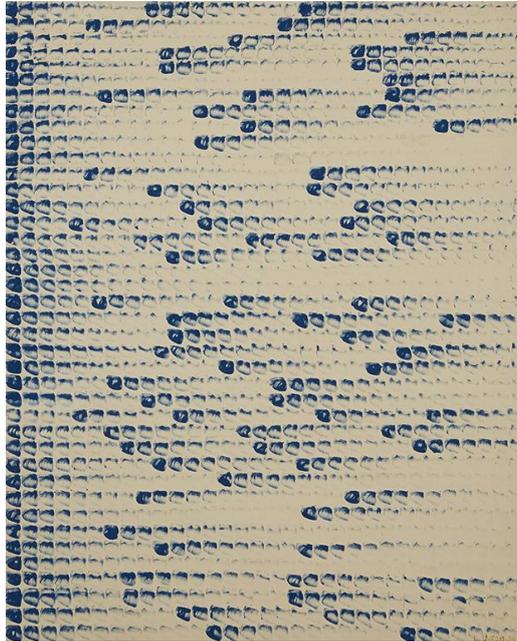
마대에 연필, 유채

194.5 x 300cm

사진: 윤상진

박서보의 작품 안에는 반세기 동안 수행을 통해 정련된 작가로서의 사명감이 담겨있다. 그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정신적이며 초월적인 상태를 작품 속에 심화시켰다. 간결함과 단아함이 돋보이는 박서보의 작품은 궁극적으로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워내고 수신을 일깨우는 행위를 지향한다. 한국현대미술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서보는 전통한지를 이용하여 소박하지만 역동적인 그만의 예술세계를 추구한다. 그는 한국의 고유한 정신성을 바탕으로 한 대표작품 <묘법(描法)> 연작을 살펴보자면 꾸준하고 반복적인 행위와 지난한 작품 제작과정의 세밀함을 통해 단색화 운동의 근본적인 행위와 물질이 곧 작업의 일환이 되는 작품세계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 받는다. 박서보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주요전시로는 2014년 파리소재의 엠마뉴엘 페로탱 갤러리 개인전, 2012년 대구미술관, 2010년 부산시립미술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프랑스 생테티엔메트로폴 현대미술관, 1991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등 유수의 기관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또한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신호탄>, 1992년 테이트 갤러리 리버풀의 전 등 주요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으며 소장처로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과 도쿄 현대미술관, 아시아 전역의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었다.

이우환 (1936-)



점으로부터

1974

캔버스에 유채

160 × 130cm

사진: 김상태

이우환은 1960년대 후반 자신이 출간한 저서들을 시작으로 모노하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1956년 일본으로 건너간 이우환은 한국과 일본의 미술계를 잇는 문화적인 가교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이 두 곳을 중심으로 단색화를 국제적으로 노출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한 바 있다. 그의 주요 연작 <선으로부터> 및 <점으로부터>는 1970년대 초에 발단, 이후 단색화 운동과 그에 대한 상호간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읽혀진다. 그는 일련의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점을 찍는 행위와 동시에 다루어지는 물질성,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 탐구해왔다. 이는 이우환이 유년기에 수학한 한국의 전통 서예에 기반하며 단번의 붓질로서 선을 그려내며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신체성에 기인했다. 신체성에 대한 작가의 말을 따르면 “무지(無地)의 캔버스에 점을 찍는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리는 것과 그려지지 않은 것을 관계 짓게 하는 짓이다. 터치와 논 터치의 거름과 상호침투의 간섭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여백이야말로 회화를 열린 것이 되게 해준다.” 라고 밝힌바 있다.

이우환은 1973년부터 2007년까지 타마 미술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였다. 벨기에 왕립미술관, 요코하마 미술관, 베니스 팔라조그라시, 뉴욕 현대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주요 미술기관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 전을 가진 바 있다. 그외 주요 전시로는 2011년 구겐하임 미술관 회고전 <이우환: 무한의 제시>, 2014년 프랑스 국립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규모 조각 전을 가진 바 있다.

정상화 (1932-)



무제 73-7

1973

캔버스에 아크릴

165 x 115cm

사진: 김상태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 허쉬혼 미술관 소장 심의 중

정상화는 같은 행위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반복된 과정을 통해 고요하고 단순한 아름다운 미학을 형상화한다. 그의 작품은 작가가 화면과의 상호간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취하는 반복행위를 통해 얻어진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상화의 작품들은 매체의 물성과 철저한 규칙에 따라 동일한 과정을 되풀이하는 반복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다. 작가는 고령토를 캔버스에 발라 초벌을 완성하고, 초벌이 다 마르면 캔버스를 규칙적인 간격으로 접어서 균열을 발생시키고 갈라진 경계를 따라 고령토를 떼어내 움푹한 자리를 만들고, 그 빈 공간을 다시 아크릴 물감으로 메운다. 의도적으로 떼어내고 메우는 섬세한 작업을 반복하고 나면 캔버스의 균열에 의해 물리적으로 본래의 점유된 영역을 꿰뚫는 독특한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동시에 그가 추구하는 본질을 관통하는 철학적인 사고와 상통한다. 작가는 캔버스에 난 균열을 특유의 멋과 깊이로 치환하는 동시에 작품 속에 치유의 공간을 구현한다.

한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일본을 기반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한바 있는 정상화는 2011년 프랑스 생테티엔메트로폴 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가진 바 있고, 주요 전시로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전 <기가 차다>, 2009년 경주 아트선재미술관 <현대미술의 단면>, 2008년 폴란드 포즈난의 미디어이션 비엔날레, 1998년 부산 시립미술관 <한국단색회화의 이념과 정신> 등이 있다.

정창섭 (1927-2011)



방랑

1985

캔버스에 유채

198.5 x 116.5cm

사진: 김상태

소장처: 라쇼프스키 컬렉션

정창섭은 한국의 전통 닥을 물에 불린 후 주무르고 반죽하는 과정을 제작과정으로 포용한 '그리지 않은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물성의 변화와 작가의 끈질긴 인내의 결과물인 그의 작품은 물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이다. 대신 캔버스에 종이를 풀로 고정시키기 전, 종이가 물에 불려진 시간에 따라 명도와 채도가 변화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색감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정창섭의 작품에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의 진리 사이에서 균형을 다뤄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도교윤리가 심분 반영되어 있다. 정창섭의 창작활동은 '닥'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시작된다. 물에 젖어 걸쭉해진 종이 완전히 그 힘을 상실했을 때 작가는 비로소 물성 자체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그는 자연과의 합일 정신을 근본으로 단색화를 통해 물아일체(物我一體)에 대한 작가 고유의 궁극적인 신념을 전달한다.

주요전시로는 2012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대규모 전시 <한국추상 10인의 지평>과 2011년 국립현대미술관과 시드니 현대미술관 연계전시인 <텔미텔미: 한국-호주 현대미술 1976-2001>, 2008년 서울시립미술관 <한국추상회화: 1958-2008> 전시 등 유수의 국공립 미술관 전시이력이 있으며, 2010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가진 바 있다.

하종현 (1935-)



접합

1974

종이에 유채

120 x 175cm

사진: 김상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하종현의 가장 고유한 조형언어로서 두꺼운 물감을 촘촘히 짜인 마대 뒷면에서 밀어 넣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루치오 폰타나가 캔버스에 날카로운 칼자국을 낸 커팅작품이나 프랭크 스텔라의 화면 윤곽을 강조했던 기법과 사뭇 비슷하다. 그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간결하고 고요한 분위기의 <접합> 연작은 밀가루, 신문, 종이, 철조망 등과 당시 한국전쟁 이후 미군 군량미를 담아 보내던 포대자루 같은 非(비) 미술적이고 非(비) 전통적 매체들을 통해 다양하게 접근했다. 당시 시대상을 빗대어 보면 매우 일상적이며 동시에 정치적 요소를 함축하는 소재들을 사용한바 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보수적인 미술의 경향을 부정하며 동시에 작가의 청년의 시기를 둘러싼 어려웠던 사회상을 반추한다. 그는 유화를 주요하게 다루어왔는데 물감을 물질로서 캔버스의 뒷면에서 밀어넣는 그만의 고유한 기법은 한국의 군사정부 시절,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감춰야만 했던 내면의 울분을 예술로 승화한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의 단색화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미에서 강조되었던 중성적이고 차분한 색깔과 요소들을 새롭게 변용하면서, 기존 회화의 고정관념을 깨고 추상회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하종현은 1959년 홍익대학교 졸업 후 서울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홍익대학교 예술대학의 학장을 지냈으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으로 재직하였다. 작가는 2004년 경남 시립미술관, 2003년 밀라노의 무디마 파운데이션 현대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열었고, 2012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가진바 있으며, 2014년 뉴욕 소재 블럼 앤 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진바 있다.

국제갤러리는 제 56 회 베니스비엔날레의 병렬전시 <단색화>의 연계된 야외 조각 설치의 일환으로 이우환의 대규모 장소특정적 조각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미 국제적인 미술계에서 동시대의 지성이자 엄격한 작품 태도로 그만의 고유한 철학적 작품언어의 궤적을 지속해온 이우환은 이탈리아 베니스의 다양한 팔라쑈(이태리만의 고유한 건축양식을 지닌 웅장한 건물) 중 가장 기하학적인 야외 공간을 사랑하는 팔라쑈 콘타리니-폴리냐의 지상 층에서 그의 고유한 작품 소재인 철과 돌 그리고 뉴트럴한 본래 공간의 자연적 여건을 고려한 신작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국제갤러리 주최하고 벨기에의 보고시안 재단이 주관하는 베니스 비엔날레 병렬전시관 야외 공간을 위해 이우환의 대표작품 중 하나인 연작을 선보인다. 이 다섯 가지의 조각적 제스처들은 공간 내에서 가공되지 않고, 점유되며, 실천과 무위 사이를 반추하는 장면을 나타내며, 이는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물질과 인식의 관계에 따른 미묘한 경계를 반영한다.

이우환은 이번 작품에 대해 “표현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고 싶었다. 무의미한 것을 버리고 존재하는 것이 아직 나타내지 않은 것을 통해 그 실제적인 파급을 목도하고자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지향하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개입을 배제하고 직관에 근간한 관념을 추구했으며, 1960년대 후반 모노하의 주역으로서 그가 매진해온 철학적인 반추와 미학적 패러다임을 완결하는 특별한 기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설치의 모노하의 본질에서 창안된 미학적 요소와 이를 점유하는 공간 관계의 역동성을 조망한다.

뿐만 아니라 팔라쑈 내부에 개관하는 <단색화>전과 함께 선보이는 <단색화와 이우환>, 야외설치 전은 자연적으로 형상화된 바위와 돌, 그리고 자갈에 이르는 재료로 구성된 대규모의 설치 작업 및 이를 위한 작가의 개인적인 사유를 드러내는 드로잉들로 이루어진다. 이 두 전시는 당시 비슷한 시점을 전후로 태동한 단색화와 모노하 운동을 재조명하는 당시의 시대적 현상과 배경을 환기시킨다. 단색화와 모노하는 70년대를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술 운동으로서, 당시 한국을 기반으로 한 시대적 현상에 따른 기존의 보수성을 전복시킨 아방가르드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우환은 자국의 동시대 작가들 및 그가 작품 활동의 기반으로 삼았던 일본의 두 장소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한 바 있으며, 단색화 태동기 다수의 작가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우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단색화에서 소개된 물질성과 신체성, 그에 파생된 반복성과 관계성에 대한 그만의 철학적 사유를 다채로운 작품의 궤적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국제갤러리